



단결과 연대로 책임지는 경주지부!

경주지부 14기 22호

발행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주지부 지부장 정진홍 전화 : 054-748-3223 팩스 : 773-9270 인터넷 : <http://gj.kmwu.kr> 발행일 : 2026.06.24(수)

AI시대, 현장 간부 역할을 다시 세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확대간부 교육 참가



금속노조 경주지부는 2026년 6월 단양 금속노조 교육연수원에서 열린 14기 1년차 금속노조 확대간부 교육에 참가했다. 이번 확대간부 교육은 6월 9일부터 24일까지 3차례로 나눠 진행했으며, 경주지부 지부집행위와 각 지회 확대간부는 차수별로 참석했다.

금속노조는 해마다 정세와 현안에 맞는 주제를 정해 간부들이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는 교육을 진행해 왔다. 올해 교육은 AI 전환과 산업전환이 노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금속노조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소식에는 참가단위 소개와 여는 발언, 일정 안내를 진행했다. 조영미 금속노조 교육실장은

인사말에서 확대간부 교육은 지부 집단교섭에서 확보한 교육시간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라며, 이제는 금속노조 간부들이 한자리에 모여 단결을 다지는 정기 교육으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또한 해마다 주요 정세에 맞춰 간부들이 같은 교육을 받고 인식을 통일하는 것이 금속노조의 힘이라며, 조합원 앞에 당당한 간부가 되기 위해 1박 2일 동안 학습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교육 첫날에는 입소식을 마친 뒤 문화활동 ‘투쟁과 함께한 노래’를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강의에 앞서 노래와 율동으로 몸을 풀고 교육 참여 분위기를 열었다.

이어 ‘AI 전환과 노동의 대응’을 주제로 한 1강을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AI 전환이 산업과 노동에 가져오는 변화를 살피고, 기술 변화가 현장 노동자에게 미칠 영향을 다뤘다. 참가자들은 AI가 생산과 업무 방식, 노동과정에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확인했다.



2강은 ‘인공지능 사업전환, 금속노조의 대응’을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인공지능과 산업전환이 일자리, 노동강도, 현장 관리에 미치는 문제를 짚고, 금속노조가 현장에서 준비해야 할 대응 과제를 다뤘다. 이후 참가자들은 ‘현장 영향 진단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모둠토론을 진행하며 각 사업장의 상황을 공유하고, 현장 간부의 역할을 함께 논의했다.

둘째 날에는 ‘AI시대, 조직을 성장시키는 연결의 말하기’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현장 간부가 조합원과 어떻게 만나고, 어떤 말로 조직을 연결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 이어 질의응답과 확대간부 교육 평가를 통해 1박 2일 교육 내용을 정리하고 현장 실천 과제를 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AI 기술 변화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고용과 권리, 현장 감시·통제와 노동강도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회사가 AI를 도입하고 활용할 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인권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주요하게 다뤘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요구이기 때문이다.

금속노조 경주지부 확대간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AI 전환과 산업전환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현장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바꿀 수 있는 문제임을 확인했다. 이번 교육은 간부들만의 교육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AI가 현장에 들어올 때 무엇이 바뀌는지 조합원이 함께 알고, 노동자의 고용과 인권이 먼저 지켜질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